

### “대중매체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김 기 태

(서강대 방송아카데미 교수/언론학 박사)

#### 1. 머릿말 : 국민건강과 대중매체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가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영향력의 방향이나 정도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뿐 영향력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는 현대인의 의식과 가치, 규범을 정립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지침이 되고 있다. 결국 대중매체라는 새로운 창으로 그려지는 세상의 모습이 현대인들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영양’, ‘건강’, ‘식품영양’ 이란 용어나 ‘한국영양학회’, ‘영양사’, ‘식품영양학과’ 등과 같은 단체 또는 직업 이미지도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소수 직접 이해당사자나 일부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영양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과 모습으로 이들 주체들이 다루어진다면 왜곡된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국민들에게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셈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의 열기에 비해 올바른 영양 및 건강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지침이 일반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나 방법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전달되어야 할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와는 전혀 다른 왜곡 또는 허위에 가까운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까지도 적지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각종 직업이나 전공 분야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대중매체의 기능과 그 활용여부에 따른 이중성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대중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중매체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그 양면성

기본적으로 대중매체는 두얼굴을 지닌 양면적 존재이다. 대중매체 자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중립적인 존재이다. 이를 활용하는 일반 수용자의 역량과 취향에 따라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유용성 여부가 판가름 날 뿐이다. 결국 대중매체 자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는 가변적 존재인 셈이다.

즉,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반면, 역기능적 폐해에 대해서는 그 여과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중매체의 양면성을 오늘날 대표적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을 예로들어 정리하기로 한다.

#### 1) 대중매체의 정기능적 유용성 : TV 유용론

먼저, TV는 잘 활용만 하면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매체보다도 많은 유용성을 지닌 가능성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영상세대로 불리우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은 '영상으로 생각하고 영상으로 말하며 영상으로 듣는 세대'들 이라는 점에서 보면 TV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첫째, 오늘날 TV는 부모나 교사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교육적 기능)

즉, TV는 가장 영향력있는 사회교육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V속에서 그리고 있는 수많은 유용한 내용의 메시지들은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에 의존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TV의 교육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TV드라마를 비롯한 각종프로그램 속에 스며있느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 TV는 현대인에게 좋은 친구이다.(화제제공 및 오락기능)

TV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참다운 친구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인의 공허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진정한 친구란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어주고 슬플 때 위로자가 되어주는 존재인데 이를 TV가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TV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현대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친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운다거나 감동적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내면의 교감을 하는 경우 TV는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생활 속의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를 제공해주고 동일한 화제 속으로 대화를 끌고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드라마나 정보 프로그램 속에 스며있느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TV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이다. (정보제공기능)

TV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TV를 통해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 균형성을 모두 갖춘 TV 속의 수많은 정보들은 시청자들의 필요에 따라 제대로 취사선택 할 경우 매우 중요한 지식과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TV는 이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넷째, TV는 직접 경험해보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일깨워주는 좋은 인간관계의 장(場)이다.(사회적 기능)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 관계들이 얽혀 돌아가는 복잡성이 특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교육이 없이는 올바른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TV 속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인간형과 인간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올바른 사회관계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익힐 수 있다.

다섯째, TV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계도기능)

현대사회를 시민민주주의라고 불리우듯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TV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환경문제나 식품유통 및 가공과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필요한 내용을 TV가 적절히 방영한다면 효과적인 캠페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TV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 기재이다.(휴식, 오락제공기능)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점차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 개념과 휴식 또는 놀이, 레저 개념이 바뀌고 있다. 즉, 어떻게는 많은 일을해서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절대적 노동가치 개념이 실질적인 삶의 질 즉 진실한 행복을 찾는 형태로 바뀌면서 '노는 것'이 죄악이 아니고 오히려 잘 노는게 필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대두된 셈이다.

이런 놀이나 휴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서 방송의 오락 기능은 다른 어떤 역할에 비해서도 중요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TV속의 주요 프로그램들인 쇼,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가 사실은 모두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어쩌면 현대인에게 TV는 오락 매체로서의 유용성을 가장 잘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TV의 존재는 필요하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얼마든지 문명의 이기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매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중매체는 우리 국민의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재로서의 유용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셈이다.

## 2) 대중매체의 역기능적 폐해 : TV 유해론

첫째, TV의 세계는 실제 현실 세계와는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세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인관계 그리고 갖가지 사회관계를 매개해주는 과정에서 허구적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 처럼 조작하고 위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둘째, TV는 시청률로 대변되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흥미거리를 양산하는데 몰두하게 되는데 이중 가장 큰 두가지의 문제가 바로 선정성이다.

거의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TV는 선정성을 강조하고 이를 프로그램 속에 삽입시키고 있는데 TV가 평균적 시민의 생활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TV는 지나친 소비주의와 잘못된 소비관행을 부추기고 일부 특수층의 과소비나 파행적 소비패턴을 일반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TV광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TV프로그램은 결국 시청자들을 소비시장으로 끌어 들여서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대,과장,허위 광고 시비가 그치지 않고 TV 화면에 비친 갖가지 의상, 가구, 노래, 장식품들이 쉬지않고 유행을 창조하여 결국 판매고를 높이는 등의 순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잘 설명해주는 셈이다.

넷째, TV는 현대인에게 찰라주의, 한탕주의, 물질주의, 편이주의 등 현대 자본주의사회 자

체가 지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이를 시청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TV는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요소 보다는 이국적이고 세계적인 요소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외래지향적이고 심지어는 사대주의적인 요소까지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대중매체는 두얼굴을 가진 양면성의 존재이다.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뿐 이지 유용론과 유해론에 대한 이론적 갑론을박이 필요한게 아니다. 다만 어떤 폐해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효율적인 대중매체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올바른 영양, 건강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대중매체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3. 대중매체 속의 영양과 건강 : TV를 중심으로

TV시청과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는 두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TV시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TV속에서 건강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두가지 논제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

'건강'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 질 수 있겠는데 그 중 여기서는 신체적 건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 안에는 '보건', '영양', '식생활', '요리', '식품', '위생' 등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있다. 신체 부위별 건강문제로 세분화시키면 훨씬 많은 논의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과제는 TV화면에 소개된 건강상식이나 건강식품 관련 정보가 잘못된 근거를 기초로 제공되었을 경우의 부작용 등이 TV가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즉, TV시청이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건강상식을 제공해주고 실제로 시청자들의 건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적지않다. 다만, 건강에 대한 문제는 개념정의에서 부터 측정,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문성이 없이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양학,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 등 관련 분야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분야마다 사회적 영향력에 관련된 연구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중매체와 건강' 또는 'TV와 건강'에 관한 논의 성과들을 추적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TV시청으로 인한 신체적 폐해를 규명하기 위해 뇌파반응실험을 한 사례가 1987년 KBS-TV를 통해 방영된 적이 있으나(프로그램 명:방송과 인간) 치아건강을 비롯한 각종 신체적 폐해 여부를 직접 실험을 통해 추적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외국에서는 어린이 시간대 광고물 중 어린이 치아 건강에 해로운 성분의 함유 정도를 초과 전문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표하여 광고중지 또는 자체를 유도하는 시청자운동 실천사례도 있었다.(美,ACT의 사례)

그동안 대한영양사회에서는 식품영양학 교수 등 학자들과 현업 영양사들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속의 건강관련 기사 또는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여 공표하는 작업을 1994년 4월 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국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V 화면에도 갖가지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나 광고 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40대 사망률 세계 1위라는 충격적 결과가 거듭 강조되고 갑자기 사망하는 과로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성인병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보도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강을 지키기위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 중에는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도 있으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왜곡된 정보를 담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멀쩡한 사람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병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효험이 없는 일반 식품을 마치 대단한 약효를 지닌 명약, 건강식품으로 과대포장한 경우도 있다.

확대해서 생각하면 해당되지 않을게 없는 증세들을 나열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각종 영양식품이나 건강요법이 오히려 건강한 시청자들을 나약하게 만들 때도 있다. 갖가지 이권이 개입되고 서로 다른 주장이 혼미하게 얽히면서 무원칙하게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TV 화면에 난무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그곳에서 건강을 얻는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잃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TV 화면에 나타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기준들인 셈이다.

여기에 대한영양사회 소속 영양사들과 각 대학의 식품영양학 전공 학생들이 모니터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 중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된 영양정보의 확산이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참여없이 논란이 일수 있는 영양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일부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전문용어를 남발하여 필요없는 군더더기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경우이다.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피치못할 경우에도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식품위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를 버젓이 소개하는 등 법규이해 미비로 인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실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역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전문성 검토가 미비했음을 나타내주는 좋은 사례인 셈이다.

넷째, 영양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시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확한 정보제공이 생명인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특정한 식품이나 제품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문안이나 장면을 통해 사실과는 다른 건강에 대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TV 프로그램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영양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유행, 인기, 흥미 위주로 다룸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는 명확한 지침이나 입장이 제시되어야 오해가 없는데도 핵심 논제에 대한 입장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결국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정확성과 사실성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되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모호성, 추상성, 부정확성을 안고있는 경우가 적지않아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건강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4. 맺음말 : 올바른 대중매체 활용을 위한 제언

이제는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모색과 그 실천이 남아있을 뿐이다.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한가지 양해를 부탁할 사항은 본인이 영양학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제언하는 내용들 중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현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내용일 경우 비판적으로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첫째, 대중매체와 건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양사회학적 접근이나 영양 또는 건강의 실천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 성과가 축적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강의가 개설되어야 한다.

학부 또는 대학원에 '영양과 대중매체', '건강과 대중매체', '건강 커뮤니케이션', '영양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을 설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대한영양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활동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일반 강의나 각 대학 단위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채택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회내에 대중매체에서의 잘못된 보도나 기사 또는 프로그램이 게재 또는 방송되었을 때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이미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도 아울러 수립,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유관 학자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각종 대중매체에 게재 또는 출연 요구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차원에서도 이 위원회의 활동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영양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교육방법의 개발도 앞으로 필요한 논의과제라 생각한다. 교육방법 개발 뿐 아니라 각종 교재개발과제도 포함된다.

아무쪼록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수용,활용하는 지혜를 통해 '영양'과 '영양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